

# 노동자와 사업주, 산업보건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산업보건인 여러분,  
희망찬 2023년의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3년 가까이 우리를 속박했던 코로나19의  
종식이 머지않았다는 점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대신 저성장·고금리로 표현되  
는 한국 경제의 침체는 우리 사회에 고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나빠지  
면 위기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은 더 낮은 곳으로 전가됩  
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2023년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개편이 이어지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  
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024년)을 1년 앞둔 시  
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예방 위주의 '중대재  
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변화는 혼란을 불러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됐습  
니다.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사업장에서의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초심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문제  
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보건의 목표는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해 노동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와 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노와 사가 이런 생각을 공  
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꼬인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은 우리나라 최대 산업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63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창립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보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산업보건 60년'의 의미를 품고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갈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가 제공하는 산업보건 서비스에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는 2023년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충북 오송으로의 본부 이전 ▲사회공헌활동 강화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K-산업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2023년에도 노동자와 사업주, 산업보건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6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겠습니다. 정확한 안전보건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검은 토끼를 상징하는 계묘년은 '어둠 속에서도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도 보이지 않는 산업보건의 영역에서 더 나은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 그리고 산업보건인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월 1일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현기

